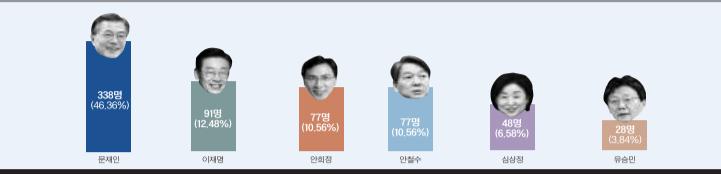


6》 대학생, 대선 예비후보에게 물다



8》 탄핵 및 대선 예비후보 인식도 조사



2017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안내

대상자 :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
※휴학생, 수료자, 졸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기간 : 2017년 3월 16일(목) ~ 22일(수) 18:00
학점포기 가능학점 :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이내



어느새 3월 중순이 지나고 있다. 양 캠퍼스는 봄 기운과 함께 찾아온 '선거 시기'에 분주하다. 서울캠퍼스는 '열·일' 선본의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정후보(왼쪽), 국제캠퍼스는 '우리가 함께' 선본의 유매연(환경학 및 환경공학 2013) 정후보와 '디딤돌' 선본의 진도원(스페인어학 2011) 정후보(오른쪽)와 경선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 4년 양 캠퍼스 공통 공약, '등록금'·'학사제도'

총학 공약 추이 분석

신정인 기자 sj0201@khu.ac.kr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최근 4년간 양 캠퍼스 종학생회(총학) 핵심공약을 모두 분석해본 결과, '등록금 협상'과 '학사제도 개편'을 공통적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제도 개편의 경우 지난 총학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은 이행되지 못했다. 49대 총학 후보자 역시 유사한 공약을 다시 내걸었다. 이번 총학

후보자들이 이전 총학들과의 차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다.

등록금 관련 공약은 지난 2013학년도 국제캠퍼스(국제캠) 45대 총학 'POWER DREAM', 46대 총학 'KHU-KEY'가 등록금 인하를, 47대 총학 '친KHU'가 등록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걸어 주장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44대 총학 'KHreator'의 '반값등록금 공약'과, 46대 총학 '경희의 조건'은 공약은 아니었지만 인터뷰를 통해 등록금 인하에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2015학년도 국제캠 47대 총학 '친

KHU'의 등록금 동결 공약을 기점으로 등록금 인하 주장은 사그라졌다. 이후에는 등록금책정위원회(등책위)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거쳐 진행되는 등록금 협상의 시기가 중요해졌다. 특히 양 캠퍼스 총학회장이 부재한 현재, 등록금 협상은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상적으로 대표자가 선출되고 총학이 구성됐다면 49대 총학생회가 등록금 협상의 주체가 됐겠지만 이전 학생회는 여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업무와 함께 비대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등록금 협상은 3월을 넘긴 지금까지도 가책정 상태에 머물러 있다.

등록금이 동결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인하될 경우 가책정에 따라 납부한 금액과 인하된 금액의 차액 만큼 환불조치를 진행하게 돼,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등책위가 3월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장학팀은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49대 총학이 등록금 협상을 시급히 진행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학사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다양

48대 총학 'KHU&KHU'는 형식적인 강의평가 개선을 주장했다. 서울캠 45대 총학 '당신곁에'가 성적 평가제도 개편을 통한 완전한 절대 평가 도입을, 서울캠 47대 총학 '오늘의 경희'는 대형강의 축소를, 서울캠 48대 총학 '취향저격'은 팀플 수업의 절대평가제도 도입과 중간 점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중간점검제도는 팀플 과제에서 조원의 기여도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공약의 이행률을 살펴보면, 서울캠 47대 총학 '오늘의 경희'가 내걸 '대형강의 축소' 공약에 따라 기준 38개였던 대형 강의가 5개로 줄어든 것과, 국제캠 47대 총학 '친 KHU'의 '수강신청개선 공약' 이후 생긴 예비과목답기가 유일했다. 그마저도 수강신청 대란은 반복됐다. 결국 이번 국제캠 49대 총학 '디딤돌' 선본은 새로운 수강신청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캠 '열·일' 선본과, 국제캠 '우리가 함께', '디딤돌' 선본 모두 학사제도 개편 관련 공약을 제시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 4-5면

종합만족도 57점 … 학사행정·취업지원 만족도 저조

미정원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2016 경희대학교 학부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우리학교에 대한 학부생의 종합만족도가 5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정책원(미정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양 캠퍼스 2학년 이상 재학생 2,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캠퍼스별 종합만족도는 서울캠퍼스(서울캠)가 58점, 국제캠퍼스(국제캠)가 56점이었다.

계열별 종합만족도 결과를 살펴

보면 의학계열이 62점으로 상대적으로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은 54점으로 전체평균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자연·공학계열은 60점이었다.

▲교과과정 내용 ▲교과과정 운영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진 ▲학사 행정 ▲전공 평판 ▲취업 지원 등 7개 항목별 만족도 점수에서는 교수진에 대한 평가가 64점으로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 '전문성 높은 강의 실시(67.3점)'와 '성실한 자세(67.6점)'를 높게 평가했다. 반면 '적극적인 진로 상담

(56점)'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관련해 학생들은 교수진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1,2,3순위로 꼽았는데, 순위 합산 결과 '기존의 학문 분야에만 치중'하는 문제를 32.9%가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우리학교에서 주요한 사항으로 꼽은 '통섭'에 대한 노력이 더 커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부족(31.0%)', '진로상담 부족(30.0%)'을 개선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행정 부문의 경우 만족도가 50점으로 전체 부문 중 가장 낮았다. 세부적으로 '전공차원의 취업 지원노력(45.3점)'과 '전공 관련 부족사항 개선노력(46.2점)', '행정직원 전문성 보유(47.9점)', '학사행정에 대한 친절한 안내(49.5점)' 등 세부항목 6개 중 4개가 50점도 넘지 못했다.

이런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불만은 우리학교 대나무숲과 에브리타임 등의 학내 커뮤니티들에서도 자주 제기된 문제다.

▶3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카카오톡 플러스 ID: 경희대 학내신문 대학주보

전문가 칼럼

민주주의 모범사례 남긴 국민의 힘
임성호(정치외교학) 교수 ▶7면



대학주보 66기 수습기자모집

모집대상 : 1, 2학년
모집일정 : 3월 7일부터 24일까지
접수방법 : 대학주보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 참조

시선

사설

미래창조스쿨의 성공은 섬세한 소통전략에서부터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 모든 사회적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와중에 지난 3월 11일 서울대학교에서는 '물대포 사건'으로 회자되는 일이 벌어졌다. 시흥캠퍼스 설립을 둘러싸고 일어난 구성원 간 갈등과정 중 학생을 향한 소화전 발사라는 강압적 방식이 동원된 것이다.

'물대포'라는 단어가 시국과 맞물려 정치적 합의를 갖게 된다는 점만 배제하면, 사실 이런 갈등은 대부분의 조직 공동체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단일 공동체에서 조직의 미래를 위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제 구성원 간에 원활한 소통을 도모한다는 것은 종종 매우 지난한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제 구성원 집단이 '같은 비전'으로 나아가는 방법론에 대해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을 경우 소통과 대화라는 과정은 자칫 일의 진척을 정체시키는 장애물처럼 여겨지기 심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용능력을 동원해 의사진행과정을 일방적 방식으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들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방적 방식'이란 비단 소화전 살수와 같은 직접적 물리적 행사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민주적 절차 유지를 위한 섬세한 전략이 생략된 '소통'이라는 명목을 위한 형식적 소통' 역시 일방적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를테면, 학기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래창조스쿨 관련 학생 설문조사가 그렇다.

학생 공동체의 견해를 확인하고 의사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제한 없는 언로(言路)의 제공을 통한 적극적 의견청취와 아울러 숨어있는 견해의 수집을 위한 세심하고 정밀한 여론수집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학교 측이 학생 여론을 청취하는 방식은 과연 섬세한 전략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학기 초부터 대학은 미래창조스쿨 설립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 아래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지난 주부터는 일부 수업시간을 활용해 온라인과 동일한 양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복 응답의 가능성 조차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과연 '학생여론'을 대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프라임 사업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했듯, 명목을 위한 형식적인 소통의 결과는 결코 좋을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청되는 소통은 '소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보고서 한 줄을 위한 의미적 소통이 아니라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과 꾸준히 대화하고 토론하여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절차적 소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창조스쿨이야말로 그 절차적 소통이 절실히 요구되는 테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숨을 고르고 차분해질 때다. '교양학부'라는 완성형 전신을 기반으로 두고서도 후마니타스 칼리지 설립에는 수 년간의 준비기간이 요구됐다. 하물며 전신이 랄 것도 없이 거의 무(無)에서 시작하고 있는 미래창조스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심도 깊은 논의와 밀도 높은 고민, 그리고 경계 없는 소통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 구성원은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대학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대학 측은 구성원에 대한 소통의 방법론을 원점에서부터 신중히 마련해야 한다.

학교와 의견 다른 재수강제도, 논의는 오리무중

미디어 여론동향 2017. 3. 6~3. 19

여론동향팀 khunews@knu.ac.kr

17학번 신입생부터 강화된 재수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학교와 학생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재수강제도, 변경될까?/대학주보 온라인, 2017.3.12) 현행 재수강 제도는 B-학점부터 허용되며 대체로 재수강할 수 있는 학점 수에 제한이 없다. 학생출입역량강화TF는 취업률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부담이 없던 재수강 제도를 고치고자 했다. 변경에 따르면 C+학점부터 재수강이 가능하며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A-로 제한된다. 또한 학기 당 2개 과목까지, 최초 수강 후 4학기 이내에 재수강을 해야 하는 등 제한사항이 붙는다. 이에 대해 지난달 23일 열린 회의에서 학생 대표 측은 1



이 주의 주제 - 두 개의 선거 (학생회 재선거 / 대통령 선거)

3월 선거와 5월 선거의 온도차

기호웅 (편집장)

khodori2@knu.ac.kr

'가는 날이 장날'인 것처럼. 필자가 편집장을 갖 맡은 2017년 초는 학교 안팎에서 갖가지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 안에선 SPACE21사업이 막바지에 들어갔고 양 캠퍼스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며 미래창조스쿨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교 밖에서는 촛불시위가 이어졌고 대통령은 탄핵 당했으며 5월 대통령 선거가 결정됐다.

격동의 시기 한 가운데 대학 언론의 기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영광인지 혹독함인지 모르겠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여러 대선후보들을 직접 만나는 간담회를 진행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 신문은 여러 대학신문사와 함께 대선후보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학보사 기자들이 기획한 행사답게 오가는 문답도 20대 짧은이나 대학생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방송을 통해서만 봤던 유명 정치인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설레기도 하지만 큰 기대만큼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후보들이 국민을 대함에 있어 진심을 다하기보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더러 보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처럼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특정 후보가 지지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차별을 금지하면서 또 다른 법률로 금지조

항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예비 후보의 설명은 비겁한 변명으로 들렸다.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들의 모습과는 다른, 현실정치가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일부 후보들이 이와 같은 사안에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필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소수자들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선 철저히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세분화 된 시민의 다양한 모습은 정치인이 승리를 위해 '선택과 집중'해야 하는 요소가 되고 말았다. 사람이 목적 그자체가 아니라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학교 안에서 진행 중인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재선거는 비교적 순수하게 다가온다. 명확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며, 기성 정치인에 비하면 대표자가 얻을 것은 크지 않음에 반해 이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훨씬 더 가깝고 무서울 것이다. 대선 이슈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으면서 정작 우리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생회 선거는 이에 묻히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산적해 있는 일들, 가령 등록금심의와 책정, 학사제도개편, SPACE21에 따른 공간구성 협의 그 그리고 아직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미래창조스쿨의 존재 등을 직간접적으로 현재의 재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의 후배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당선자가 나오지 않는 비극은 없길 바란다. 이건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다. 3월의 선택이 5월의 옳은 선택을 위한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한다.

차 수강에 협력 기준을, 2차 재수강부터 변경안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학교 측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2차 재수강 시 최대 학점 B+제한을 제안했다. 이후 서울캠 비상대책위원회는 중문위를 통해 관련 논의를 3월에 선출될 차기 총학생회에 넘기기로 했으며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은 2017년 제1차 확대운영위원회 투표를 통해 재수강 제도 변경에 반대하기로 결정해 추가적인 논의 자체가 오리무중에 빠진 상태다.

'자난주 행정실에서 신입생 같은 유학생이 직원과 이야기 하는 걸 봤다'는 글(#경희숲_20423, 2017.3.9)의 글쓴이는 행정실의 안일한 일처리를 꼬집었다. '수강신청을 못 했는지 더듬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데 직원 분은 한결같이 "다른 학생도 다 그렇게 하니까 정정기간에 하거나 다음 학기에 들으세요"라고 대답했다. 참 속 편한 말인 것 같다. 정말 하다하다 안 돼서 행정실에 가는 건데, 조금만 더 도와주고 노력해 주면 좋겠다'고 썼다. 294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근로학생한지 좀 됐는데 행정실은 아무 권한이 없지만 그래도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좋은 선생님이 많았으면 좋겠다', '평가제를 도입하거나, 클레임 할 수 있는 창

구가 있었으면 한다', '조교들은 등록금 때문에 하는데 일도 많고 전화 늦게 빙으면 훈날 뿐 아니라, 권한도 없는 데 아무것도 못한다고 욕 먹는다' 등의 의견을 나눴다.

자신의 장학금을 전액 기부한 학생이 있다.(간호학과 장대한 학생, 장학금 1,000만 원 전액 기부/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3.10) 장대한(간호학 2012) 학생은 삼성이 운영하는 드림클래스에 4번 참가해 장학금 1,000만 원을 받았다. 드림클래스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학생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강사로 참가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장군은 이 장학금을 중학생 제자 10명의 이름으로 NGO단체, 소아암 환자에게 전액 기부했다. "아이들에게 수혜자의 입장이더라도 나눔에 동참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며 나눔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는 그는 "대학 안에서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기부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UN세계 평화보고서를 보니 의식주 다음이 교육과 의료였다"라며 "임상간호사로 경험을 쌓고 더 공부해 교육과 의료를 융합하는 것이 목표"라고 뚜렷한 계획을 밝혔다.

굶어본 이들의 봄

세시봉

이수형 (서울 뉴스팀장)



버스타고 광화문 가는 길, 완연한 봄날씨에 기분 좋게 즐고 있는데 역시나 버스가 도중에 멈춰 섰다. 차량 통행이 금지된 을지로 2가를 지적에 두고 버스는 유턴 했다. "오늘은 탄핵기념 파티라도 한다니?" 툴툴대며 버스에서 내리는 아주머니 찌푸린 얼굴에 정신이 확 든다. 3월 11일, 탄핵선고 다음날이자 탄핵 이후 첫 토요일이다. 어김없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종로에 모여들었다. 청계천 외곽에는 탄핵반대집회 행렬이 지나고 있었다.

을지로를 지나고 청계천을 건너 오랜만에 도착한 토요일 광화문은 이전에 본 것보다 한산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개 식용반대, 고양이 식용반대' 서명운동 창구. 그들이 소리치던 문장들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발견한 다음 볼거리는 '사이비 종교 반대법 제정' 서명운동 창구다. 건네받은 전단지에는 '재판부에 저희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을 받고 있다'고 쓰여 있다. 이 밖에도 'NGO식품 반대' 서명운동 등 각자의 요구를 담은 전단지를 나눠주는 이들이 집회행사 양쪽 곳곳이 들어차 있다.

고난을 겪고 나서야

우리는 세상과 마주한다

특이한 건 그들이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분위기였다. 것이다. 나 자신도 평소엔 받아들면 가방에 구겨 넣기 바쁘던 전단지를 유심히 읽었다. '국가가 국민들의 정당한 진실규명 요구를 번번이 묵살해 왔다'란다. 각각 서명운동창구 앞에는 서명을 하려는 시민들이 심심치 않게 들어선다. 세월호 천막 앞에는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다.

적잖이 놀란 나는 놀이공원 둘 듯 전단지를 수집하고 나섰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관련 호소문, 'IDS 헐дин스 사기사건' 관련 호소문 등 공통점은 찾기 어려운 다양한 요구들이 두 손 가득 모였다. 사람들이 '죽제'를 즐기는 밤이 돼서야 깨닫는다. 변화를 이끌어낸 민중들은 타인이 외치는 변화에도 관대하구나.

무릇 굶어본 자만이 세상을 안다 했다. 이들은 이미 굶주림을 경험했고, 각자가 느끼는 부조리 속에 굶주린 이들이 만연한 세상을 아는 것이다. '정치판'이라는 세상에 소리쳐본 이들이 본인에게 팜플렛을 쥐어주는 이들의 요청을 무시하지 못해, 전단지 속에 담긴 호소를 읽어내려 간 것이다. 그 속에 담긴 굶주림에 고민하는 장이 광화문에 펼쳐진 것이다.

잠시 서점에 다녀온 사이 하늘은 킁킁해졌다. 여전히 세월호 천막 결의 촛불모형 앞에는 아이들과 기념 사진을 찍는 가족이 보인다. 마침 불꽃놀이가 한창이라 한참을 구경하고 앉았다. 불에 꽂이 피듯 어두운 하늘에 불꽃이 밝게 피고 시선이 하늘에 모인다. '이곳에서 봄 햇살을 뛴 이들이 내일이면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온기를 주겠지' 생각하며 자리를 옮겼다. 봄이 오고 있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n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해경 | 편집장 기호웅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 이메일 khunews@kn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면에서 이어짐

‘행정’으로 검색되는 게시물들에서는 “무책임하다”,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공지 시에 문자 하나 보내주면 행정실 업무가 마비되나요?” 등의 의견들과 공감하는 댓글이 많았다.

더불어 취업 지원 부문 역시 만족도 점수가 53점으로 종합만족도 평균에 못 미쳤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청년실업률이 점차 심각해지는 가운데, 양 캠퍼스의 취업률이 담보상태인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 취업률은 2014년 50.6%, 2015년 50.9%, 2016년 51.2%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주요 경쟁대학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관련해 학생들은 취업 지원 부문의 우선 개선 사항으로 ‘졸업생의 사회 진출정보 안내(34.1%)’와 ‘기업과의 연계 강화(25.3%)’에 대해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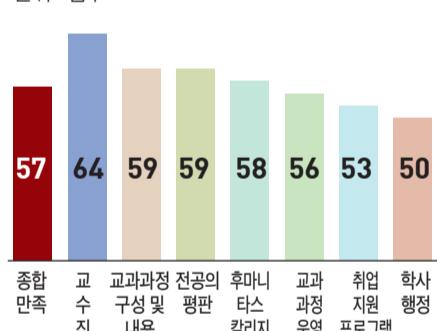
이밖에 교과과정 구성 및 내용은 59점과 교과과정 운영은 56점, 후마니타스 칼리지 58점, 전공 평판 59점을 기록했다. 각각의 부문별 우선 개선사항으로는 ‘사회 진출/ 진학에 도움(17.7%)’, ‘수강 인원 수요 파악(17.7%)’, ‘교수별 수업 편차가 크므로 해소가 필요함(25.6%)’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수 교수진 총원, 맞춤형 취업·진로·진학상담, 수강신청 결과를 다음 학기 강좌 평가설에 반영하는 등의 정책을 연구·추진할 계획이다. 미정 원 측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중이며 빠르면 이달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정원은 기존 측정모델이 만족도 결과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만 알 수 있었을 뿐, 그 요인이 왜 영향을 미치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이번 평가부터 반영했다. 이에 측정모델을 개편해 주요 품질요인을 7가지로 세분화하고 요인별 우선 개선과제를 파악하며 서술형 문항을 설계해 학부생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 종합만족도(품질요인별)

단위 : 점수



기술·공학 통합 순위 236위 신규 분야 ‘호텔 및 레저’ 31위

2017 QS 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

설자연 기자 jy0622@khu.ac.kr

2017 QS 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에서 우리학교의 16개 분야가 상위 200위 안에 올랐다. QS 세계대학 학문평가는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에서 발표하는 대학순위평가 중 하나이다. 평가는 학계 평판도, 졸업생 평판도, 논문당 피인용도, H-index(교수 생산성 및 영향도)의 4개 항목을 통해 이뤄지며 총 46개 분야에서 순위를 매긴다. 상위 50위까지는 개별 순위가 발표되며, 51~400위까지는 같은 범위에 있는 대학끼리 묶어서 발표된다.

우리학교에서 상위 200위 안에 선정된 학문 분야는 ▲호텔 및 레저 ▲체육 ▲건축 ▲농·임학 ▲정치학 및 국제학 ▲약학 ▲현대언어 ▲화학공학 ▲경영 ▲도시공학 ▲

법학 ▲언어 ▲전기전자공학 ▲재료공학 ▲지리 ▲회계·재무 분야이다. 특히 호텔 및 레저와 체육 분야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학문분야로 각각 31위와 51~100위 구간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이공계 분야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기술·공학 통합 순위에서 236위를 차지해, 국내 대학 중에서는 8위를 기록했다. 또한, 건축, 화학공학, 도시공학, 재료공학 분야에서도 전년도와 비교해 상승세를 보였다. 건축과 화학공학 분야는 101~150위를, 도시공학, 재료공학 분야는 151~200위에 올랐다.

이밖에도 언어, 지리분야, 회계·재무가 151~200계단이 상승한 151~200위에 올라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으며 경제, 사회, 영문학 분야가 상위 350위 안에 신규 진입했다. 한편, 학문 분야별 순위가 아닌 대학 종합순위를 발표하는 QS 세계대학순위는 오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캠, ‘온라인 투표’ 도입 기표소 ‘전자투표’ 도 병행

새로운 선거 방식 도입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서울】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진행되는 자율전공과·정경대학·총학생회 보궐선거에 ‘온라인 투표’ 방식이 도입된다. 개인 휴대폰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를 주된 축으로 하되 투표를 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보완책으로 기표소 내에서 진행되는 ‘전자 투표’도 함께 운영된다.

온라인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투표 기간이 시작되면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인 휴대폰 번호로 투표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SMS를 통해 배부된다. 유권자는 접속 후, 투표 시 준수 사항에 동의 후 이름과 학번으로 로그인을 한다. 이때 후보자 공약도 함께 볼 수 있다. 이후 휴대폰 번호로 5자리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 후 전자서명을 한 뒤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투표를 위해서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변경’ 항목에서 학생소식란 ‘SMS 수신동의’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한

다. 온라인 투표는 개인 휴대폰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

총학생회 이정이(아동가족학 2012) 비상 대책위원장은 온라인 투표 도입 배경에 대해 “보궐선거이다 보니 종이 투표나 전자 투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투표’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자투표 업체인 오토텔스 신철우 담당자는 “고려대, 방송통신대 등 여러 학교가 온라인 투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 휴대폰만 있다면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편리함과 더불어 비용의 측면에서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라며 대학가의 온라인 투표 확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온라인 투표와 전자투표를 진행하는 이번 선거 비용은 약 880만 원이며 단과대는 15만 원, 총여학생회·총동아리연합회·총유학생회 등 특별 기구는 10만 원을 부담한다. 나머지 금액은 선거를 진행하는 단위와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차지비로 부담된다. 이번 선거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제57조에 따라 현재 재학 중인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ollaborative 2017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2017.06.30 ~ 07.27 [4주간]
- 개설강의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21개 강의 (GC홈페이지 참조)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 신청기간 2017.03.13 ~ 04.30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장학금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 (추후 공지예정)
- 문의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afc.khu.ac.kr/cep>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gc





2017년 학생회 재선거

48대 권예하 집행위원장, '열·일' 선본으로 총학출마

서울캠 총학후보 인터뷰

이수형 기자 dltbd112@knu.ac.kr
박지영 기자 kitty2988@knu.ac.kr

서울캠 총학생회(총학) 재선거 투표기간(27일~29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학 부재상황 약 3개월 여 만에 재개되는 이번 선거에는 '열·일' 선본이 단독 출마했다.

'열·일' 선본의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정후보와 김혜영(아동가족학 2012) 부후보는 신입생이 아니리면 의히 알만한 얼굴들이다. 특히 권 후보는 2012년 총여학생회장을 시작으로, 2014년 총학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2015년 정경대학 학생회장, 2016년 총학 집행 위원장을 지낸 학생회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열·일' 선본은 "대표자 공백기 동안 학교가 미래창조스쿨, 외국인등록금 인상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고 누구라도 책임감을 갖고 나서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출마계기를 밝혔다.

학생회 경력이 길다보니 권 후보에게는 '업무경험이 풍부해 학생회 운영에 유리한 면이 많다'는 평가와 함께, '이전 총학과 차이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지금까지의 총학 운영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권 후보는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생활적인 부분을 지원 할 수 있는 공약을 준비했으며 실제 운영에 있어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Q. 정·부후보 모두 총여학생회장 출신이라 일부 학생들은 '총여학생회 출신 선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특정 커뮤니티에선 총여학생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선본 이미지에 투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권예하 정후보(정) : 총여학생회를 하면서 총학생회에 출마한 것이 아니다. 제가 총여학생회장을 할 때 가졌던 생각들과 총학생회로서 가져야하는 생각의 방향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원해야 하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 그러한 우려는 기우가 아닐까 싶다.

Q. 수강신청 대기순번제는 학교도 한창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도개선이 용이해 보이지만 강의 수 부족은 어떻게 접근할 예정인가?

정 : 선거기간 중에 관련 단위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고 면담요청을 했지만, 이 사안은 그냥 논의테이블에 앉아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행정적인 부분에 결정권자가 학생이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의 요구가 모이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학생의견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Q. 신축기숙사는 행복기숙사로, 이미 20만 원 선에서 입사비가 결정됐고 경인지역 입사도 예정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 이를 공약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혜영 부후보(부) : 경인지역 입사는 학교도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지만 아직 입사조건이나 선발기준 등은 학생들과 소통을 거치지 않았기에 공약으로 내걸게 됐다.

신축 기숙사는 199,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학우 분들이 값싼 가격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3년간 기숙사를 고정하고자 한다.

Q. 양 캠퍼스 모두 '역량강화 장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적인 장학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약인 경제지원 장학을 중심으로 재개편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지원 장학이 장학제도의 중심이 돼야 하는 근거를 설명 듣고 싶다.

부 : 대학주보 기사로 생활비대출을 받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접했다. 천 명이 넘는데, 그 중 100명 정도만 생활비 장학을 받을 수 있고 우정장학 또한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여력에 장학금을 집중해야 하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소득분위를 통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우정장학보다는 '보편적인' 생활비 장학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

정 : 학교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오히려 학생들이 더 공부를 하고 학교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생활비나 경제지원 장학 중심이 맞다. 전공교재만 해도 10만 원 넘어가는 곳도 있던데, 그런

부분을 장학이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학의 방향성에 학생이 원하는 바와 학교가 원하는 바가 부합하지 않다는 고민이 있다.

Q. 대선 5대 의제 선정, 투표일 '출석체크 없는 날' 지정, 어떤 계획인가?

정 : 대선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대해 학생의 인식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느꼈다. 이번 대선에 대학생의제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대학주보가 진행하는 대선주자 간담회도 잘 보고 있는데, 단순 간담회를 넘어 대학생들의 의견을 의제화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총학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껴 '경희인 5대 의제 선정'을 계획했다.

또 학생은 투표하려는 의지가 많은데 임시공휴일임에도 보강 잡기가 어려워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들 꼭 계신다. 일괄적인 휴강은 어려울 수 있으나 출석체크가 없다면 투표하는데 부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계획한 공약이다.

Q. 이달 말 입학금 반환소송 재판을 앞두고 있다. '부당징수 입학금 반환운동'은 재판에서 입학금 반환이 무산됐을 때를 생각한 공약인가?

정 : 재판과 관계없이 입학금 반환운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길게 봐선 입학금 폐지가 목표지만, 최소한 근거를 갖고 입학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Q. 48대 총학은 회계감사단위를 단과대학 학생회로 확대 시행하는 안을 무산시켰다. '열·일'이 내세운 통합 회계운영세칙 제정은 무산된 안과 어떤 차이가 있나?

정 : 회계감사를 전단위로 확대하는 것 이 작년 계획이었다. 하지만 각 단위가 회계 감사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느꼈고, 단위마다 결산안 공개 방식, 회계운영방식이 다르다 보니 지지부진 했다. 지금 고민하는 회계운영세칙은 각 단위의 회계운영을 공통양식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학생 누구나 본인이 속한 단위(교수회 단과대학 학생회, 총학생회)가 어떤 예산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기본양식은 지난 체육대학 오토비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제작해 공개



올해 꼭 해야 할 열가지 일!

핵심 3개 공약

1. 수업권 문제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 강의 수 부족으로 인한 교양강의 수강신청 문제 대응, 수강신청 대기순번제 지속여부·재수강 제한제도 천반여부 모바일 정책투표로 결정

2. 신축기숙사 입사, 더 폭넓게, 더 쉽게! 신축 기숙사비(20만 원 선) 최소 3년간 고정·경인지역 입사보장, 기숙사 신청 눈치전쟁 No! (1, 2순위 신청제) 도입, 입사 시 계약기간 전에도 쉽게 자취방 빌 수 있게 임시 중개페이지 운영

3. 신축 건물 사용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돕겠습니다. 관련 단과대학의 논의사항(면담,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 신축기숙사 1층 라운지·경희인이 직접 디자인

놓치고 갈수 없는 7대 공약

4. 장학금, 꼭 필요한 학우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장학제도를 경제지원 장학 중심으로 재편 신축건물 매장수의 일부 장학금 환원 요구

5. 빨라진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에 나서겠습니다. 경희인 대선 5대 의제 선정, 투표일은 <출석체크 없는 날>로 지정

6. 입학금, 외국인등록금 문제해결에 나서겠습니다. 부당징수 입학금 반환운동, 외국인등록금에도 등록금 상한제 적용

7.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통합 회계운영세칙 제정, 반(反)성폭력 내규 제정 및 교육

8. 소모임, 학회를 지원하겠습니다. 50개 소모임, 학회에 인쇄비 5만 원 지원, 대동제 때 단과대학과 공연소모임 상설무대 운영

9. 해치지 않아요! 더 가까운 총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시험기간, 새로운 길거리메뉴로 돌아온 <황금마차>, 소모임 밥값이 부담될 때 총학생회와 <학식 한끼줍쇼>

10. 경희 인의 버킷리스트를 응원합니다. 낭만이 있는 본관놀이! <벚꽃영화제> 개최, 포토샵·피트니스 등 재능배움 사이트 수강료 할인

했다. 회계감사 건에 관해서는 이후에 논의하겠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정 : 총학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한 생각은 '학생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는 것이

다. 학번 때문인지 '총학 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 때문인지, 학생들이 쉬이 다가오지 않는다. 실무에 집중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더라.

늘 '학생들과 더 가까이 할 걸'하고 아쉬웠다. 그러나 학생들도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 아직 배울게 많다.

정경대학 '디딤돌' 선본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시도할 것"

박지영 기자 kitty2988@knu.ac.kr

제49대 정경대학 학생회 재보궐 선거에 우예림(언론정보학 2015) 정후보와 민혁(경제학 2014) 부후보가 '디딤돌' 선거본부(선본)로 단독 출마했다. 디딤돌 선본은 ▲정경대학 추가 공간확보 ▲통학 학우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 ▲심야시간 정경대학 안전개방을 주요공약으로 꼽았다.

Q. 출마계기가 무엇인가?

A. SPACE21 사업 이후 정경대학 공간확보 문제나, 여타 다른 상황에서 학생회장직이 공석이라면 정경대학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정책에 잘 반영되지 못할 것이 우려가 컸다.

Q. 교통비 지원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A. 사업대상자인 '먼 거리를 통학하는 학우'는 대중교통을 사용해서 회기역까지 오는데 40분 이상이 걸리는 학생을 말한다. 한 학기당 10만 원을 20명 내외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주소지 등 의증빙서류를 토대로 대상자를 가릴 계획이다.

Q. 홈페이지 리뉴얼은 어떻게 할 것인가?

A. 정경대학 학생회 홈페이지라고 불릴 수 있는 웹페이지는 싸이월드 클립인인데,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다수여서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이를 네이버 카페로 홈페이지를 옮기겠다.

카페에는 소모임 모집 공고나 공모전 등을 소개하고, 교재 중고장터인 정경대학 책방을 만들 계획이다. 더불어 분기별로 공약 진행 현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알리겠다.

Q. MT주류지원, 스터디 그룹 지원 등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 많다. 재원마련 방법이 궁금하다.

A. 주류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이 크지 않다. 또한 스터디 그룹의 경우 심사 후 1등부터 3등까지 차등적으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정경대학 학기당 자치회비로 충당할 수 있다.

Q. SPACE 21 사업 이후 정경대학 공간 확보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A. 2017학년도 1학기 중으로 동의마당 주변의 단과대학을 모아서 협의기구를 만들 예정이라고 들었다. 협의기구에 참여해 논의하기에 앞서 정경대학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정경대학의 분명한 입장을 정하겠다. 이를 기초로 회의에 참여해 정경대학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겠다.

Q. 이전 학생회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A. 이전 학생회와의 차별화를 강조해 다른 공약을 추진하고 다른 색깔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임 학생회가 추구했던 '기본'이라는 가치를 이어받아 디딤돌 선본 역시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나가겠다.

자율전공학과

'곁애' 선본 "학생들의 학과만족도 높이겠다" '자랑' 선본 "진정한 단결자전 만들겠다"

박지영 기자 kitty2988@knu.ac.kr

8대 자율전공학과 학생회 선거에 '곁애' 선본과 '자랑' 선본이 출마해 경선을 치룬다. '곁애' 선본은 황경민(자율전공학 2016) 정후보와 황규리(자율전공학 2016) 부후보, '자랑' 선본은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정후보와 이경빈(자율전공학 2016) 부후보이다. '곁애' 선본은 주요공약으로 ▲학과 박람회 개최 ▲글로벌리더 트랙 전임교수 배치 등을 공약으로, '자랑' 선본은 ▲학사·학위제도 개선 ▲자전 커뮤니티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곁애' 선본은 "우리학교 자율전공학과는 타 학교보다 장점이 많은 학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도 많았다. 그런 학생도 과에 애착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새내기 지원 공약에 대해 "자율전공학과의 특성상 전공이 다양하게 나뉘지만, 정말 그 전공을 잘 알고 선택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곁애' 선본은 "1학기에는 각 전공을 선택한 선배를 초청해 '학과 박람회'를 개최, 전공에 대해 잘 모르는 새내기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2학기에는 각 전공을 선택한 선배와 후배를 연결해주고 필요하면 상담 교수까지 소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곁애' 선본은 "지난해 출업에 필요한 전부분을 장학이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학의 방향성에 학생이 원하는 바와 학교가 원하는 바가 부합하지 않다는 고민이 있다.

공필수 과목이 갑자기 폐강됐고, 전임교수가 없어 출업사진도 학생들끼리만 찍었다"라며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학생 불만사항을 수렴하고, 출업준비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자랑' 선본은 "타 학교 자율전공학과와 비교할 때 우리학교에서는 과의 입장이 작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출마했다"고 말했다.

'자랑' 선본은 "'자랑' 학과를 자랑하는 학과'의 장벽 탓에 다른 학과 전공을 수강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개선할 의지를 밝혔다. 또한, "현재 글로벌리더 트랙을 전공하면 사회과학 학사가 주어진다"며 "사회과학 학사라는 명칭으로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학위명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지난해에 이어 계속하겠다"는 공약이다. 새내기 지원 공약으로는 '멘토링 제도'를 들었다.

'자율전공학과 학생교류 도모'는 두 선본의 공통공약이다. '곁애' 선본은 "각 과에 있는 자율전공학과 학생들을 모아 '자전 네트워크'를 구축해 계속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랑' 선본은 "먼저 타 학과로 학적변경을 한 사람들끼리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 이후 전공 대표에게 지원금을 제공하여 같은 학과에 속한 자율전공학과 선·후배가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함께’ 선본 “학교와의 수직적 관계 탈피”

“대화와 탐험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국제캠 총학후보 인터뷰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n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선 지난 3월 13일부로 ‘2017학년도 학생회 재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총학생회(총학)에는 ▲‘우리가 함께’ 선거본부(선본)의 유매연(환경학 및 환경공학 2013) 정후보와 ▲‘디딤돌’ 선본의 진도원(스페인어학 2011) 정후보, 이화영(기계공학 2015) 부후보가 출마했다. 두 선본의 공약에서 일정한 공통점이 발견되는 동시에 미묘한 차이도 발견된다.

‘학우들의 직접참여’

‘본부와의 대화와 탐험’

먼저 양 선본 모두 ‘취업·불황’ 등의 사회적 환경을 출마 이유로 꼽았다. ‘우리가 함께’ 선본은 ‘학생들의 직접 참여’와 ‘학생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의사설정 및 정책화’를 강조한 한편, ‘디딤돌’ 선본은 ‘대학본부와의 대화와 탐험’을 통한 ‘올바르고 합리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한 점이 차이다.

‘우리가 함께’ 유매연 정후보는 “총학생회장은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며 “지금까지 대학본부가 학생들과 이야기 없이 정책 결정을 하고, 사실상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에 화가 났다”고 출마 계기를 밝혔다. ‘디딤돌’ 진도원 정후보는 “변화의 시대 속에 올바르고 합리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대화와 탐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부후보와 최대 효율의 파트너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공약에서도…

서로 다른 접근법

양 선본 각자의 공약 중 공통되는 것들도 많았다. ▲입학금 사용내역 ▲캠퍼스이원화 ▲강의 수 증설 ▲종합체육관 이용 ▲기숙사 통금은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세한 차이는 있었다. 먼저 ‘입학금’과 관련해 ‘우리가 함께’ 선본은 법적공방을 선택했다. 지난해 9월부터 ‘입학금 반환’을 위해 소송인단을 구성했고, 오는 3월 30일에는 우리학교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디딤돌’ 선본은 2017학년도 현재 가지고 있는 등록금 및 입학금에 대한 불명확한 신정근거 내용이 있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배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캠퍼스이원화’ 정책이다. ‘우리가 함께’ 선본은 ‘학내 남아있는 캠퍼스 간 차별’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장학금 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시작이다. ‘디딤돌’ 선본은 ‘캠퍼스 명칭 변경’을 전면에 내세웠다. 동시에 ‘학사제도의 통일’을 이루겠다고 밝히며 전과 제한이나 토의점수를 통한 영어강의 면제 등을 예시로 들었다.

강의 수 증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선본은 ‘필수과목 정원을 학생 수의 110%’로 개설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재수강 인원을 고려해 정원보다 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디딤돌’ 선본 역시 ‘강의 수 증설’을 수강신청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진 후보는 “강좌 수를 감소시킨 이유를 학교 측에 묻겠다”며 “재정 악화에도 보장돼야 하는 것이 학습권”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장 후보_우리가 함께, 유매연

우리가 함께, 경희의 변화를 만들어요

제13 유매연

1
기호

우리가 함께, 유매연입니다.

언제든지, 유매연과 함께해주세요! 010-3213-9527

기호 2 총학생회장 후보 진도원 부총학생회장 후보 이화영
스페인어학과 11 기계공학과 15

국제캠 총학후보 공통공약비교

선본명	공약명	입학금	캠퍼스이원화	강의 수 증대	제2기숙사 통금	주력공약
우리가 함께	반환소송 유지	학내 차별 개선 (장학금 분배)	필수과목 정원 110% 개설	폐지 : 정책투표로 결정	정책투표제 일반학우의 TF참여	
디딤돌	본부와 대화·탐험	캠퍼스 명칭 변경 학사제도 통일	학사제도TF 통한 협의	폐지 : 분기별 간담회	캠퍼스 명칭 변경 등록금·입학금 산정기준 공개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종합체육관 이용’ 관련 공약도 제시됐다. ‘우리가 함께’ 유 후보는 “일반 학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확보하겠다”라며 “또한 모든 건물의 온라인 강의실 대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딤돌’ 진 후보 역시 “기존 체육시설과 체육관에 대한 온라인 대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내걸었다.

이번 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기숙사 통금제’ 폐지 공약도 제시됐다. 양 선본 모두 학교 측의 일방적인 ‘소통’을 비판했다. ‘우리가 함께’ 유 후보는 “학생 투표를 진행해 통보식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딤돌’ 진 후보는 “분기별 간담회”를 제안했다. 그는 “학생들과 기숙사, 총학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겠다”며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기숙사 통금제도는 기숙사 내 잡은 안전사고로 인해 지난 2학기 시행을 예고했다가 한 차례 유예된 것이다. 당시 총학은 사고예방을 위한 캠페인 기간을 가졌다. 실제로 우정원에 비해 신입생 비율이 높은 제2기숙사는 안전사고가 잦다. 총학이 통금제도 폐지를 내건 이상, 기숙사와의 협의를 위해 ‘사고 예방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가 함께’ 선본

‘학생주권’에 주력

‘우리가 함께’ 선본의 주요 공약은 ▲정책투표제 ▲TF팀 일반학우 참여 ▲실험·실습비 공개 및 재료비 지원 등이다. ‘정책투표제’란 학교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전체 학생 1/10이상의 찬반투표를 거치겠다는 내용이다. ‘실험·실습비 내역 공개 및 재료비 지원’의 경우 예술·디자인과

학 실험·실습비 사용내역을 우선 공개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해 학생 작품의 재료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디딤돌’ 선본

‘대화 통한 변화’ 시도

‘디딤돌’ 선본은 ▲대화 통한 ‘입학금 문제’ 해결 ▲캠퍼스 명칭 변경 ▲양 캠퍼스 학사제도 균등 개편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입학금 문제’를 외부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보단 이원화TF를 통한 내부 소통을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이라는 지명과 ‘국제’라는 예명이 혼재된 우리학교의 캠퍼스 명칭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선본은 우리학교의 기조인 ‘네오’와 ‘르네상스’ 캠퍼스 모델과 학문적 특성인 ‘이문(理文)자연’과 ‘실용과학’ 캠퍼스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전과제도의 제한’이나 ‘토의점수와 영어수강 면제’ 등 캠퍼스 간에 차이나는 ‘학사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우리’, 5·9 학생총회

‘디딤돌’, 이원화 서면약속

‘우리가 함께’ 유 후보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총학에서 종책을 역임했다. 2015년, ‘31대 자주적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거쳐 2016년에는 ‘입학금 반환운동’ 서포터즈 단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유 후보는 ‘5·9 학생총회’를 의미 있는 경험으로 꼽았다. 2013년, ‘5·9 학생총회’는 1,400여명의 학생들이 중앙도서관에 모여 학생총회를 성사시켰다. 총회에선 ‘등록금 인하’에 대한 의사를 개진했다. 유 후보는 “절대 모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중앙도서관에 모인 학우들이 일제히 등록금 인하에 대해 이야기하던 경험이 기억에

과대학 행사에 힘을 보탰다.

진 후보는 프라임사업 당시 ‘양 캠퍼스 부총장의 이원화 관련 서면약속’을 얻어낸 것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꼽았다. 진 후보는 “당시 서면약속을 받아낸 것은 의미 있는 결과물이지만 스스로가 학생이 뽑은 선출직이 아니었다는 한계가 아쉬웠다”라며 “이번 기회에 학우들의 힘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4대 총학은 고질적인 문제인 ▲캠퍼스이원화 문제 해결, ▲교육의 질 확대 문제와 새로이 나타난 ▲미래창조스쿨 출범을 맞게 된다. ‘캠퍼스이원화 문제 해결’과 ‘교육의 질 확대’는 우리신문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각각 ‘2017학년도 우리학교에 필요 한 가치’ 1, 2위를 차지했다.

미래창조스쿨에 대해 양 선본은 일제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가 함께’ 유 후보는 “관련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고, 학생들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디딤돌’ 선본은 ‘부총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한다.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향후 계획에 대해

캠퍼스이원화 문제에 대해 양 선본은 다른 접근방식을 보였다. ‘우리가 함께’ 선본은 ‘캠퍼스 간 재원 불균형 극복’, ‘디딤돌’ 선본은 ‘제도 통일’과 ‘캠퍼스 명칭변경’을 전면에 내걸었다.

양 선본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우리가 함께’ 유 후보는 “지금은 총학회장이 없는 채로 학교와의 등록금 협상을 하고 있는 시기인 동시에 여러 정책에서 학교의 일방적 통보가 있었다”라며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할 시기이고, 학우들의 힘으로 바꾸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디딤돌’ 진 후보는 “학우 여러분께 긍정적인 변화를 선물하고 싶다”라며 “내부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움직이겠다”고 믿음을 호소했다.

국제대·생명과학대, 비대위 체제 장기화 불가피

김은수 기자 eunsu1031@knu.ac.kr

【국제】 국제대학(국제대)과 생명과학대학(생대) 학생회 선거가 또 다시 무산됐다.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치러질 예정이었던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은 까닭이다. 두 단과대 모두 지난해 치러진 학생회 선거에서 후보가 없어 이번 재보궐 선거로 이미 한 차례 유예됐다. 국제대와 생대는 총학 선거가 끝나는 즉시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미 두 차례 연기된 대표자 선출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제대는 학생회장 자리가 공석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국제대 윤민지(국제학 2015) 부학생회장이, 생대는 김대일(식품생명공학 2014) 학생회장이 선관위장을 맡고 있다.

두 단과대학 선관위 모두 총학생회 선거가 끝나는 즉시 재선거를 시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제대 윤민지 선관위원장은 “새로운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중선관위)장의 의사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이미 중선관위에서 합의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선관위원장은 “학우들의 도움으로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회실이 항상 열려있지는 않아 학우들이 불편함을 겪을까 걱정”이라며 대표자가 부재한 상황에 대해 고충을 밝혔다.

생대에서는 김대일 선관위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할 예정이라, 생대 소속 학과 학생회장들을 중심으로 한 ‘내각제’ 시행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선관위원장은 “예정된 생대 재보궐 선거에서도 학생회장이 선출하지 못하면 새로운 체제로 단대를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학생회장직을 공석으로 두고 학과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대선주자에게 묻다 1편

안희정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바탕한 대통령”

유승민 “경제와 안보에 준비된 대통령”

서언회 기자간담회

기호웅 기자 kihodori@khu.ac.k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시작됐다. 황교안 총리가 5월 9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면서 대선은 현실이 됐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 신문사는 26개 대학신문사의 연합체인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와 함께 현재 거론되는 유력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질문은 대학생과 관련되거나 대학생이 궁금해할만한 소재를 중심으로 경제, 교육대학, 여성성소수자, 국방외교 등으로 나눠 구성했다. 이번 지면에서는 최근 진행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정리했다. 간담회는 따로 진행됐으며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데 구성했다.

Q.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와 다른 후보 또는 역대 대통령과의 차이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안) : 직업 정치인의 꿈은 자연스레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박정희 리더십의 낡은 운영 체제 정치를 세대교체하고, 적폐를 청산해 혁신을 이루고자 시대적 사명을 띠고 출마했다.

근본적으로 헌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본인은 의회와 대통령의 새로운 협치를 추구하고 지방자치를 통해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자치분권체제로 이행시킬 것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유) : 현재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 부분에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본인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누구보다 해당사항에 대해 준비돼 있다. 보수 정당에 속해 있지만 경제정책은 기존 보수의 것과는 다르다. 진보든 보수든 옳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안보에서 강력한 원칙론자이다. 또한 지난 8년간 국방위 원회 활동을 하며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에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져왔다.

본인은 직접 판단하고 느낀 것으로 이야기 한다. 국정의 핵심조차 모르면서 아바타같이 일하는 이전의 대통령과는 다르다.

Q. 사상 최악의 취업률과 경제 침체로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계획인가?

안 : 일자리도 부족하지만 그보다는 가지고 싶은 일자리가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양극화와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일자리 자체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통해 일자리 임금의 수준을 균등화시켜야 한다. 둘째,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막으려면 대기업의 수요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이 독점하고 있는 패권적 권력질서를 깨야 한다.

유 : 현재 청년들은 너무나도 큰 실패위험 때문에 창업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창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창업에 도전할 젊은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면서 동시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겠다.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다. 임금 격차 해소 등 근본적 대책 뿐 아니라 비정규직 수나 비율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 안전하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원정이 지게 할 것이다.

Q. 지난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의 변화를 시도했지만 훈련만 키웠다는 평가가 있다. 후보가 계획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은 무엇인가?

안 : 출산과 육아는 중요하지만 각 가정이 떠맡기는 어렵다. 특히 육아 과정에서 여성은 경력이 단절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리된다. 출산과 육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것이 양성평등을 이루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여성의 권리 보장을 신장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 : 여성가족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성 정책은 모든 부처의 소관이어야 한다. 각 부처 산하에 제대로 된 부서를 만들어 여성에 관한 일들을 다뤄야 한다. 조사 결과 육아 휴직 기간으로 3년을 부여받은 공무원·교사의 합계출산율은



는 줄어들고 있으며 상당수 대학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여기에 등록금 상한제 등 재정적 문제까지 겹쳐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는 대학이 자립하기 힘든 구조다. 지방의 거점대학이 젊은 인재를 배출해 그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구조는 지역 균형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 각 지에 난립한 대학을 지역 거점대학 중심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이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지역 거점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세울 것이다. 이를 통해 젊은 층의 지방 유입을 유도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생성된 우수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생태계를 이룰 것이다.

Q. 페미니즘이 사회적인 이슈다. 후보가 생각하는 여성 정책과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안 : 출산과 육아는 중요하지만 각 가정이 떠맡기는 어렵다. 특히 육아 과정에서 여성은 경력이 단절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리된다. 출산과 육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것이 양성평등을 이루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여성의 권리 보장을 신장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 : 여성가족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성 정책은 모든 부처의 소관이어야 한다. 각 부처 산하에 제대로 된 부서를 만들어 여성에 관한 일들을 다뤄야 한다. 조사 결과 육아 휴직 기간으로 3년을 부여받은 공무원·교사의 합계출산율은

후보 약력		
안희정	입학금	유승민
고려대 철학 학사	학력	서울대 경제학 학사 위스콘신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수형으로 면제	병역	육군병장 만기 전역
무교	종교	불교
36,37대 충남도지사	경력	17,18,19,20대 국회의원

1.4명이라고 한다. 비공무원은 이보다 낮은 1.2명이다. 현재 1년인 민간 기업의 육아 휴직 연한을 공무원·교사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정부는 마땅히 육아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성은 행복을 누려야 할 존재이다.

Q. 현재의 군복무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안 : 사병 급여 인상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대통령이 된 이후 국회 차원의 국가재정혁신위원회를 두어 자세히 논의하겠다. 군복무기간의 단축에 대해서는 약속 할 수 없다. 다른 후보들은 복무기간 단축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대체를 위해 준비해야 할 무기나 관련 예산을 고려했을 때 엄두가 나지 않는 이야기다.

본인은 병역문화의 비민주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 권력, 부에 의해 결정되는 군 입대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국방문제에 관해서는 궁극적으로 전시작전

권을 전환시켜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 : 이전 정부부터 군복무 단축이 점진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입대 대상 인구도 줄어드는 추세에 무턱대고 복무기간을 12개월, 10개월로 줄이자는 건 국방을 사실상 포기하자는 얘기다.

모병제도 논의단계가 아니다. 모병제의 사례로 미국이 거론되곤하는데, 미국은 법적으로는 모병제의 형태이나 경제적으로는 징병제에 가깝다. 사병으로 입대하는 인구의 다수가 경제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모병제가 도입되면 국방의 신성한 의무가 퇴색되고 최소한의 평등도 사라진다. 또한 모병제를 시행에 따라 치솟을 사병 봉급은 어떻게 충당하겠는가. 사회정의와 국가안보,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적절하지 못한 주장들이다.

Q. 현 시국에서 특히 청년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후보가 그런 대통령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안 :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를 잘 운영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올바른 정의관을 바탕으로 강자를 규율하고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유 : 새로운 보수는 안보를 지켜야 하고, 사회 공동체를 지켜야 하며, 헌법을 지켜야 한다. 지킬 걸 지키는 보수는 사랑받는다. 전 박근혜 정권과 소위 친박 세력은 가짜 보수다. 구분되는 진짜 보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2017 1인멘토 평생멘토링 모집안내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학생을 위한 1인멘토 평생멘토링을 아래와 같이 시 행하오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7.3.30.(목)까지

2. 신청자격: 공과대학/전자정보대학 소속자 학생

3. 신청방법: 신청서이메일 제출(aeek.khu.ac.kr 공지사항 참조)

4. 활동기간: 2017.4.~2017.11.(8개월)

5. 활동내용

-교과목 학습법, 리더십 및 대인관계기술, 취업을 위한 선배들 현장 조언

6. 매칭

-재학생 1,2학년(멘토)+전공 3,4학년(멘토)

-재학생 3,4학년(멘토)+산업체 동문 선배(멘토)

7. 지원 및 혜택

-우수활동 팀 선정 및 시상(상장, 상금)

-재학생 멘토는 사회봉사 학점 인정

-최종 수료자 수료증 수여

8. 문의: 공학교육혁신센터 031-201-3254 또는 iee@khu.ac.kr

3월 넷째 주(3.20 ~ 3.24)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기업체 채용행사 및 취업특강

행사 명	일 시	장 소	비 고
롯데 채용설명회	3.22(수) 16:00~18:00	청운관 B117호	
롯데 채용면담	3.22(수)~23(목)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자기 PR 성공비법(1) - 이미지 메이킹 (문재영 교수)	3.20(월) 14:00~16:00	청운관 619호	취업 특강
합격하는 저소서 작성법(배상복 교수)	3.22(수) 13:00~15:00	청운관 619호	
공간지각력 핵심 및 문제풀이(안진선 교수)	3.24(금) 15:00~17:00	청운관 502호	

*※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자신신청 필요(행사일자기능)

* 충전정부시스템 - 모니터 신청 - 연수신청청 - 해당 설명회 '신청하기' 클릭 - 원료

* 신청 후 일정에 일정이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 신청 후 일정에 일정이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 출석 협조전달: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및 배부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가이드 참조

2. 취업진로지도 및 출입설명회(취업상담)

* 대상: 본교 학부제 학생 출입생

* 신청내용: 자기소개 및 일자리 작성법, 면접스킬지도, 기업 및 직무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상담유형	일 시	담당 컨설턴트	장 소	신청방법
개인	월요일 ~ 금요일 (전문 컨설턴트)	이연의 박언경 홍상기, 오신종	오비스홀 355호 제2법학관 107-2호 청운관 6번 상담실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상적/상담'

* 상당 신청자 의무: 취업준비도감(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당전·후각회(총2회) 필수

* 주의사항

-상당일 취소불가(상당일 1주 전까지 가능, 취소 시 전화연락)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주 전 출석하여 지침(필수)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해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bl.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bl@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처

동문멘토와 함께 하는 취업 및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일정	장소	멘토명	주요내용	멘토주요이력
3/22(수) 19:00~21:00	정내	전자적인 통신사의 직무 설명 자기소개서 작성방법이나 취업준비방법		전자적인 대학생 생활과 08학번 기업행사 입사년도: 2010년 입사 직무명: 운송기획
3/22(수) 18:00~21:00	이화성	정교 - 신성에스원 - 페스티벌 - 신도리코 꿈과 현실 고고학원!		체육대학 스포츠의학과 08학번 기업행사 입사년도: 2015.1

민주주의 모범사례 남긴 국민의 힘

전문가 칼럼

임성호
정치외교학 교수

국민의 힘으로 무능·부덕·범범의 인물을 대통령 직에서 밀어낸 이번 일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큰 획을 그은 쾌거이다. 1960년 4·19 혁명과 1987년 민주항쟁에 이어 국민이 집합적으로 뭉쳐 중대한 민주적 변화를 얻어낸 대사건이다. '민주'란 말뜻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이 '주인'(principal)이고 대통령, 의원 등 정치인은 '대리인'(agent)이라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 당연한 이치가 세계 곳곳에서 망각 또는 무시되거나 이번에 우리 국민은 누가 주인인지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 모범사례를 남겼다.

탄핵의결은 국회가, 탄핵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했지만 탄핵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끈 근원적 원동력은 국민의 행동과 의식이다. 비정상·비상식으로 점철된 국정 운영과 대통령 행태에 공분을 느낀 수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광장과 거리에 나와 분명한 의사 표시를 했고 각종 사적 공간에서 비판적 담론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압도적 여론을 형성했다. 아직도 왕조시대의 신민(臣民)적 가치관을 고수하거나 유사종교와 같은 맹신적 미동에 빠져 있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구제불능의 최고위직 대리인을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는 광범한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거대한 역사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적극적 주인의식의 통렬한 발현이라 하겠다.

특히 국민이 주인임을 매우 평화로운 방법으로 재확인했다는 점은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 일국의 대통령이 일개 사인의 정신적 조종을 받아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다는 이야기를 외국인에게 하기가 처음엔 부끄러웠다. 우리나라의 얼굴 전체에 멱칠을 하는 것으로 자존심이 상했다. 그런데 이 수치(羞恥)를 국민이 적극적 주인의식을 발휘함으로써 자부심으로 바꿔주었다. 수



대통령 탄핵선고가 있고 이튿날 11일 광화문에는 제 20차이자 마지막 촛불집회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자리했다 (사진=기호웅 기자)

백만 명이 수십 차례 모여 매번 엄청 난 민주적 에너지를 발산하면서도 아무 불상사 없이, 비폭력 시민혁명을 성공시킨 예는 달리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쾌거는 앞으로 각국의 민주주의 교재에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수많은 학자·언론인·정치인이 시사점을 얻기 위한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축하 분위기만 즐길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모범을 보였다는 생각은 자칫하면 지나친 낙관론으로 공허감을 남기거나 결국 배신감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정치현실에 대한 정치권 전체의 치열한 반성과 진정한 변화를 향한 노력이 없다면, 주인인 국민에 의해 발동 걸린 체제 변화가 대리인에 불과한 정치인들의 무능·무지·불의로 인해 궁극엔 헛수고로 끝날 수 있다. 오늘 날 정치권의 현실은 국민이 애써 만든 호기를 허무하게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암울해 보인다.

무엇보다, 경직된 정파 집단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현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과 반

대세력을 겹박하며 불통의 통치를 자행했던 것은 개방적 소통과 다양한 의견을 허락하지 않는, 폐거리 집단주의와 양극적 대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당 내에도 다양한 의견과 견디는 비판의식이 존재했으나 경직된 집단주의로 인해 자유롭게 분출되기 어려웠다. 이분법적 집단 대결 속에서 대통령에 대한 중립적·중도적 견제는 애당초 가능하지 않았고, 무조건 승복과 무조건 반대 중 택일해야 했다. 만약 의원들이 각기 자율성을 갖고 양심과 원칙에 따라 행동했었다면 여당 내에서 아래선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힘을 낼 수 있었을 것이고 야당의 비판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매도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해도 여당으로선 무조건 따라야 하고 야당이 어떠한 비판을 해도 양극적 대결의 일환으로 치부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독선의 길을 거리낌 없이 걷고 불통의 자세를 고집스레 취했던 것이다.

정파는 어느 나라에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정도 문제

로서 그 집단기율의 경직성이 과도하다는 데에 우리 정치현실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에 탄핵으로써 변화의 초석을 깔 수 있었던 것은 국민 개인의 의식과 행동이 합해진 덕이지 정치권의 정파적 조직과 동원 때문이 아니다. 정치권이 계속 정파 집단주의에 지배된다면 대리인 간의 경쟁과 대결이 무대를 이끌고 정작 주인인 국민은 무대 밖으로 밀려 무시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탄핵 이후 새 정부의 국정운영도 비슷한 비극을 반복할 수 있다.

대리인인 정치인들이 국민을 주인으로 대하는 일이 쉬울 리 없다. 끊임 없이 진정성 있게 소통해야 하고 설득의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설득이 항상 성공할 수 없기에 국정 운영은 고달풀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누가 주인인지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잊는 순간 탄핵 성공이라는 민주주의 모범사례가 또 하나의 악몽으로 변질될 수 있다. 대리인끼리 집단주의 대결을 펼치며 주인을 무시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던 과거가 더 이상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을 정치인들이 절감해야 할 것이다.

참여마당

홍익수

(환경조경디자인학 2012)



삶, 여행, 인식 그리고 다시 삶

방학은 무엇을 위해 있을까? 알비, 인턴, 공부 및 스페 쌓기 등 할 일은 많지만 1차적인 목적은 휴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군 제대 후 복학을 하니 내일모래 20대 후반이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 방향을 제시해주시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의 길을 정해야 한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이젠 달려 나가야 할 때지만, 방학을 했으니 어디라도 놀러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 방학, 피로도 풀 겸 가족끼리 짧은 온천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가 간 곳은 노천온천과 수영장이 함께 있는 리조트였다. 정신없이 온천을 즐기다 어느 순간 어색한 점을 발견했다.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어린 아이, 또는 대학생 이상의 어른들 뿐이라는 걸. 분명 초·중·고등학교도 방학일 텐데 다들 어디로 갔을까. 설 연휴 직전이었던 탓에 한산했다고는 해도 '청소년기'의 아이를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 건 이상하다.

삶에 필요한 휴식, 삶의 여정에 짐이 되기도 하더라

정말 그 이유를 몰라서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면, 아이들이 무엇을 하느라 가족끼리 짧은 여행도 못 오는 것인지는 뻔하다. 학원, 공부, 시험…, 방학 때 편히 쉬지도 못하고 학원에 들어박혀 있는 고통은 겪어봐서 안다. 10대 시절 열심히 공부했던 경희대 학우들은 알겠지만 며칠 쉬다고 성적이 떨어지는 않는다. 오히려 적절한 휴식은 꾸준한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런 간단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혹은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건 불안하기 때문이 아닐까? 마치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맘 놓고 쉬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 단 하나의 시험을 위해 삶을 바치는 아이들도 언젠가는 나처럼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그런 시기에 이르렀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때쯤이면 어디든 취직은 했을 테고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며 어린 조카들에게 세뱃돈도 주면서 살고 있겠지. 그런데 그걸로 충분한가? 개인적인 삶의 계획을 아무리 훌륭하게 세워도 그것은 혼자만의 문제라는 점에서 10대 때 하던 고민과 별 차이가 없다. 몇 년 후 30대가 되면 나도, 우리도 어른이다. 후배나 자식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책임에서도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현재와 같은 정치적 사태가 재발한다면 무슨 낯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

여행에서 숨 좀 들리려 했더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이유가 또 늘어버리고 말았다. 나이를 먹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그 무게를 새삼 체감했다. 그래도 어찌랴. 여행에 행가는 짐들은 부담스럽지만 앞으로의 긴 여정에서 필요한 물건들이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은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고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어리광을 부려도 봐주길 바란다. 난 아직 학생이니까.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①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기획 - <탄핵 및 차기 대통령 예비후보 인식도 조사>

탄핵 '긍정적', 차기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경희구성원 설문조사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 지난 10일 금요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 후 3개월 동안 이어졌던 대한 민국 역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에 대해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파면을 선고했다. 이로써 최순실 국정농단은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최후의 조치와 함께 다음 대통령 후보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신문은 학교 구성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설문조사에는 양 캠퍼스 교수 97명, 직원 94명, 학부생 435명, 대학원생 89명 등 총 729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4일 화요일부터 16일 목요일 까지 3일간 진행됐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을 기본으로 선호 후보 및 지지 정당별 교차분석도 진행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대해 묻는 입장'에 679명(93.9%)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35명(4.84%)에 불과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568명(78.6%)의 인원들은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사태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세월호 참사에 책임' 38명(5.26%), '낮은 취업률과 경제정책' 10명(1.38%) 순이었다. 추가의견으로 위의 모든 사항들이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탄핵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9명(1.94%)으로 가장 높았으며, 헌법재판관 8인 체제의 불완전성 6명(0.83%), 절차적으로 판결시간이 짧았다는 의견도 5명(0.69%)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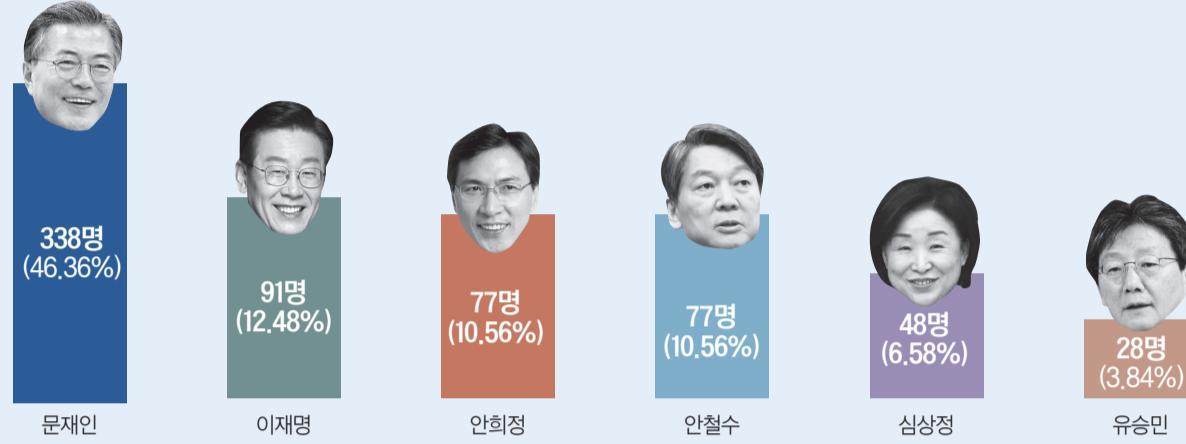
다음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 432명(59.7%) 구성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원내 가장 적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정의당'이 58명(8.02%) 두 번째로 많았으며, '국민의당' 53명(7.3%), '바른정당' 25명(3.5%) '자유한국당' 16명(2.2%) 순이었다. 하지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입장도 123명(17%)으로 두 번째로 많아 부동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묻는 질문에 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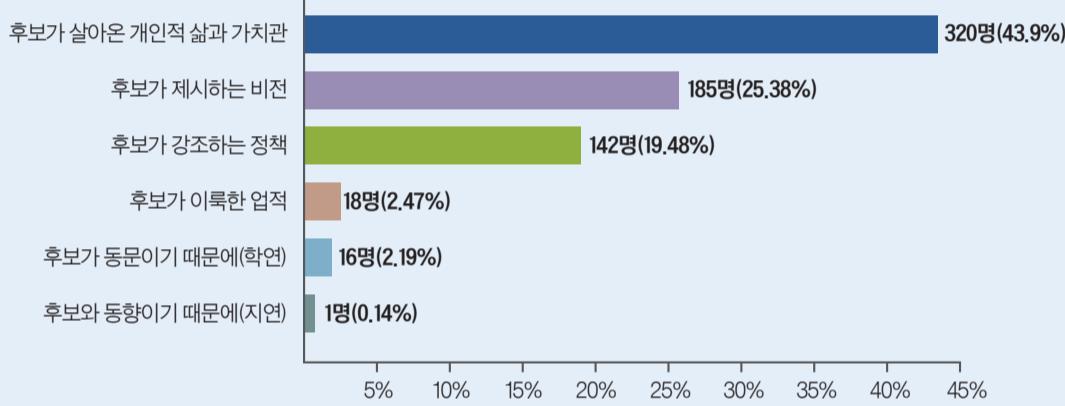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긍정 93.9% 보통 1.3% 부정 4.8%

이번 대선에서 지지하는 예비 후보가 있으신가요?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 가까운 335명(46.3%)의 인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선택했다.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이 91명(12.6%)이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의

정당 남경필 경기지사, 국민의당 손학규 전 국민주권행회의 의장 그리고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가 나왔다.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불어민주당 문 전 대표의 경우 과반수 이상(61.7%)은 '후보가 살아온 개인적 삶과 가치관' 때문에 여권 후보로 거론되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5일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26명(3.6%)의 인원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선택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28명, 3.87%)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외에 기타의견으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바른

정당 남경필 경기지사, 국민의당 손학규 전 국민주권행회의 의장 그리고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가 나왔다.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불어민주당 문 전 대표의 경우 과반수 이상(61.7%)은 '후보가 살아온 개인적 삶과 가치관' 때문에 여권 후보로 거론되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5일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26명(3.6%)의 인원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선택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28명, 3.87%)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외에 기타의견으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바른

인 지사의 경우 37.7%와 46.7%로 '후보가 제시하는 비전' 때문에 지지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5위를 기록한 정의당 심 의원도 '후보가 강조하는 정책'(33.3%)과 '후보가 제시하는 비전'(33.3%)이 동등하게 높게 나왔다. 바른정당 유 의원은 '후보가 제시하는 비전'(39.3%)이 높은 수치로 나왔다. 여권 후보로 거론됐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는 '후보가 살아온 개인적 삶과 가치관' 때문에 지지했다.

연령대별 지지하는 정당도 각 연령층과 반 이상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모습이었다. 40대가 69.3%로 더불어민주당

을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대(61.2%), 30대(54.4%), 50대(50%)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지지 순위를 살펴보면, 20대는 지지정당이 없다는 의견이 18.1%였으며 이어 국민의당(7%)이었다. 30대도 무당을 표시한 의견이 15.2%로 높게 나타났지만, 정의당이 비슷한 수치로 뒤따라왔다. 40대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의당이 17.3%로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정당을 표시하지 않은 의견이 16.7%였고 국민의당이 15.1%로 뒤를 이었다.

성별 지지하는 정당도 여성이 58.9%, 남성이 60.4%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높게 나왔다. 2위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였고, 3위는 여성에게는 정의당이 10.4%, 남성에게는 국민의당이 7.7%로 높게 나왔다.

소속별 지지하는 후보의 경우 모든 소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2위는 소속별로 차이를 보였다. 교수의 경우 13.4%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을 지지했고, 직원의 경우 9.6%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지지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경우 둘 다 13.9%와 14.8%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다.

연령별로 지지하는 후보의 경우 모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20대(13.7%), 30대(13.9%), 40대(14.7%) 모두 이재명이 차지했고, 50대는 안철수 의원(15.1%)과 안희정 지사(15.1%)의 비중이 높았다.

성별 지지하는 후보의 경우도 여성(48.5%), 남성(45%)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 다음 지지후보에 대해 여성은 안희정(11.8%), 이재명(11.8%), 심상정(11.5%) 후보가 각각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남성은 이재명(13%) 안철수(11.6%)가 뒤를 이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김민전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첫째, 예상했던 결과다.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탄핵의 결과와 가장 높은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등 일반 설문조사에서 진행한 결과와 큰 차이는 없다. 둘째, 일반적인 조사 결과 보다는 높은 수치로 이는 대학사회가 일반적으로 전체 구성원에 비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재인 지지도가 다른 설문조사에 비해 높은 부분은 동문이라는 학연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결과일 것이라 해석했다.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묻는 질문에 절반

세계 초인공 융복합 대학

DGIST

2017학년도 가을학기 대학원 학생모집

21C 융복합 과학기술의 중심, DGIST에서 지식창조형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로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가을학기 전형 원서접수 | 4. 20 Thu ~ 5. 4. Thu

문의처 T. 053-785-5146~7 | E-Mail admission@dgist.ac.kr | Website admission.dgist.ac.kr

● 전공별 모집과정

전 공	과 정
신물질과학전공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기준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가능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로봇공학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뇌·인지과학전공	석사과정은 4학기의 수학과목을 마친 후 소정의 철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뉴비이로지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장학혜택 및 특전

※ 전공별 특성화된 장학혜택은 각 전공 홈페이지 참조	
분 류	내 용
납입금 면제	전원 국비장학금 선발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 박사과정 : 13,690,000원 + @/년 ■ 석사과정 : 7,440,000원 + @/년
DPF(DGIST Presidential Fellowship) 선발	■ 특별장학금 : 3,000,000원/학기 ■ 연구원비 : 10,000,000원 이내 ■ 해외대학 연수비 : 16,584,000원 이내 ※ 지원금 범위 가능
기술사 입주	전원 입주 가능
해외연수 실시	■ 전공별 해외 유수대학연수 지원 ■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ETH Zurich, UC Berkeley ■ 국제 포지엄 참가 지원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박사과정 대상 100% 편입 가능 ■ DGIST 융합연구원 및 소속 9개 센터 (DGIST-BNL신물질연구센터, 마이크로레이저융합연구센터, DGIST-ETH마이크로봇연구센터, 고신뢰CPS연구센터, 미래자동차융합연구센터, 태양광에너지융합연구센터, 웰니스융합연구센터, 핵심단계설계원센터, 웰이빙연구센터) ■ 한국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IES) 식물문화수명연구단
국가 거대연구과제 참여	

전공 오픈랩

일 시	장 소
4.8(토) 12:00 ~ 17:00	DGIST 컨설리언스 L29 및 각 전공별 장소

• DGIST 무료셔틀버스 운행
• 기관 및 입학전형 소개, 전공 소개, Lab Tour 등
• 시외 교통비 지원 및 간단한 중식, 기념품 제공
※ 위 오픈랩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입학홈페이지 참조)

수도권 면담형 설명회

개최일자 : 매월 둘째주 금요일	※ 전공별 개최일자 등 세부일정은 입학홈페이지 참조
장소 : DGIST 서울홍보센터	(서울 중구 무교로 32 호령빌딩 703호)
• 전공별 교수와의 면담 운영(약 시간 60분 진행)	
• 사전신청 필수(신청자가 없는 전공은 설명회 미실시)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DGIST 입학홈페이지 참조
	admission@dgist.ac.kr 으로 송부

DGIST 캠퍼스가 궁금하다면?
www.dgist.ac.kr/virtualtour